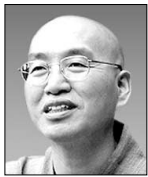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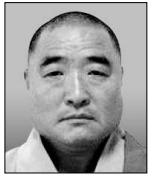
정도법당서 '육조단경' 강의
정도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9월 21일 시작해 11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 정도법당에서 육조단경 가를 특별 강좌를 진행한다.(02)587-8993



복지관 건립기원 산사음악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10월 8일 오후 7시 30분 법왕사 문화관에서 복지관 건립 기원 산사음악회를 연다.(053) 766-3747



수원 용광사 대불보전 낙성법회
수원 용광사 주지 월중 스님은 9월 28일 오전 11시 대불보전 낙성법회를 사부대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한다.(031)255-4105



안성공설운동장에서 영산재 공연
안성 송강사 주지 송강 스님(무형문화재 50호 전수교육 보조자)은 10월 7일 오후 1시 안성공설운동장에서 영산재 공연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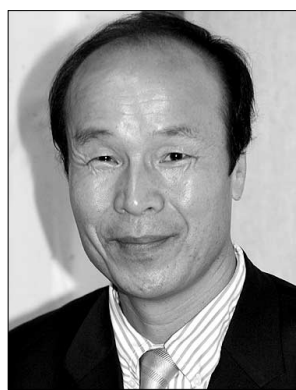
'만세보령대상' 봉사부문 수상
보령 세원사 주지 정은 스님은 보령시가 시상하는 만세보령대상 사회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시민경축의 날 행사가 열리는 10월 4일 수상식을 갖는다.



소아암환자 위한 음악회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9월 27일 서울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제3회 소아암 환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53사찰 순례로 신심 배가"

부산 범어사 신임 신도회장 박정현씨



"범어사를 울타리 삼아 신행활동을 하는 신도님들이 내 집처럼 느끼며, 스스로 회비를 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신도회 조직의 내실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9월 21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신임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박정현(53·다림건설 대표·사진) 회장은 산내 암자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신행활동을 해온 신심 깊은 불자다. 10대 나이에 범어사와 인연이 돼 드러나지 않게 절, 암불 등으로 수행 정진해온 박회장은 범어사 신도회장을 맡으면서 크게 두 가지의 원력을 세웠다. 신도들끼리의 나눔을 실천하며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느끼도록 신도조직 내실을 기하는 것과 화엄

10월 중의 하나인 범어사의 창건 이념에 걸맞게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진리를 구했듯 전국의 53사찰을 찾아 순례하고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는 성지순례를 진행하는 것.
"일반적인 성지순례가 아닌 화엄의 세계를 화엄경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범어사만의 성지순례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박회장은 "무엇보다 신도님들이 자발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과 공직을 지낸바 있는 박회장은 혼자 1백만 km에 달하는 답사를 진행했을 정도로 고건축에 대한 관심과 조예도 깊다. 현재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박회장은 "세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범어사 신도회가 발 벗고 나서 그 일을 해결함으로써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스님들과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회장은 "범어사 신도회를 참다운 수행공동체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 뿌리 튼튼한 신도조직을 차근차근 다져나갈 것"은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삶·사랑 그리고
흔이 갖는 춤이
마지막 소망



'춤 흔' 공연
안춘자 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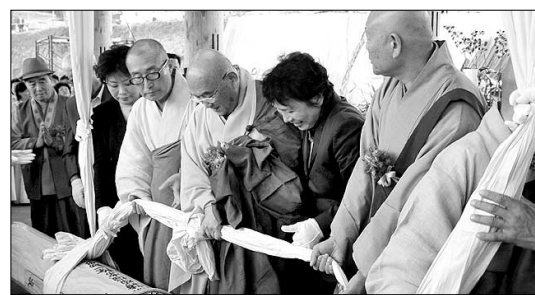
"이번 무대는 나의 삶과 사랑에 대한 회고입니다. 흔이 갖는 춤을 추고 싶은 것이 제 남은 생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승무·살풀이춤 이수자 안춘자 단장(65·안춘자무용단·사진)이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을 결합시킨 무대 '춤 흔'을 10월 4일 오후 8시 호암아트홀에서 공연한다. 몇 년 동안 '회두'처럼 풀어왔던 '춤 흔' 공연은 김영인의 희곡 등을 배경음악으로 선정한 후에도 준비기간만 1년이 걸렸다.
"1993년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허리가 뒤틀려 춤을 출 수 없을 지경이 됐죠."
그때부터 안단장은 설악산 안락암 흥련암 등지에서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추스렸다.
"춤 흔"은 총 4장으로 이루어진다. 1장은 예고 없는 죽음의 길에서 이승을 바라보며 회상하던 남자가 떠나는 아쉬움을 표시한다. 남자의 흔이 떠나고 남아 있는 여자가 등장하는 2장은 안단장이 긴 수건을 휘둘리며 춤을 춘다.
흔을 보내는 장면은 3장에서 지전으로 흔을 이르고 달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마지막 4장에 이르면 살풀이로 흔을 달래 보낸다. 이곳에서 펼치는 살풀이는 마인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그리고 죽은 이에 대한 마지막 아쉬움과 슬픔도 춤으로 승화된다.
김지연 기자



제14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거행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9월 23일 서울 안양동 승가원 강당에서 제14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동국대학교 문화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주영운 이사장은 비롯해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은정희 前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술 및 역경상'을, 고현 조 선대 교수가 '예술상'을 수상했다.
은교수는 "원효학 연구에 바친 노력을 인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고, 고교수는 "불교미술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백만원, 부상금으로 주머니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원문화재단은 대학생 8명, 고등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박익순 기자

부산 문수사 대웅전 상량식



부산 문수사(주지 지원) 대웅전 상량식이 9월 23일 거행됐다. 송광사 회주 법륜 스님, 감포사 주지 혜종 스님,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불행된 상량식에서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은 "문화와 복지, 신행을 함께 가꿔나가는 종합적인 도량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사암련 영규대사 추모제행



충북 옥천사암련협회(회장 지원)는 9월 21일 가산사에서 영규대사 추모제행을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행에는 사암련회장 지원 스님, 총무 혜철 스님을 비롯해 유봉열 옥천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옥천사암련은 옥천군과 함께 매년 영규대사를 기리는 추모제를 거행해 왔다.

인천 중부경찰서 불교회 이웃돕기



인천 중부경찰서 불교회(회장 이판열) 불우이웃돕기 생필품 전달식이 9월 14일 열렸다. 이날 중부경찰서 불교회는 쌀과 라면, 의류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전달했다. 이판열 회장은 "힘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참다운 봉사자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제5회 미당문학상 수상
문태준 시인

"散철없이 수행하는 스님처럼 시 쓰고 싶어"

시인 문태준(35·불교방송 PD·사진)씨가 시 '누가 울고 간다'로 중앙일보사와 계간 <문예중앙>이 공동 주최한 제5회 미당문학상을 수상했다.
예심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지지를 받았고 대학 평단에서도 시인·소설가 붐블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으니 그의 수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9월 22일 만난 문씨는 그 번잡스러움에서 한 발 비켜서 있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방송을 마친 후 문씨는 "상을 받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지금의 상황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한 문씨는 그동안 시집 <수련기

리는 뒤란> <맨발>을 펴냈고, 동서문학상과 노작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6월 6일까지 무려 41편의 시를 발표했다. 이런 문씨의 시에 대해 미당문학상 심사위원들은 "우리 시를 위무의 성소(聖所)로 이끄는 언어의 축복"이라고 평했다.
"생 존재에 대해, 생명에 대해 생각합니다. 존재 사이의 다름이 없애지고 경계가 허물어진다면 모두가 화해하고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나'란 존재는 단독자가 아니라 다른 생명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적인 세계를 시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는 그에게 불교는 법당에 피워 놓은 향처럼 자연스레 배어 들었다. 어릴 적 어



해 쓰지는 답하기 힘들죠. 다만 이제 시는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시구가 돼버렸습니다. 바깥에서 만나면 늘 측은하고 안쓰러운 그런 시구 같은."
"누군가 내 시를 읽고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생명과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문씨는 "산(散)철 없이 수행하는 스님처럼, 돌이킬 없이, 평생 주저하지 않고 쓰고 싶다"고 말했다.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돋보이는 그의 시는 내년 초쯤 권의 시집으로 묶여 나올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 28일 오후 5시 서울 서소문동 명지빌딩 2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여우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제2회 석문사 경로잔치



귀의삼보하움고
이번 석문사에서 청원군 군민과 함께 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석문사는 청원 남이면 불교 사찰로서 자비실천의 불교 역할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청원군의 특성을 살리고 관과 민이 함께 지역의 문화행사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전통사상과 효 실천이 어우러지는 문화 행사가 되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작 열리는 시간: 신명동예술단원의 전통의 향연으로 열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시작 흥겨운 시간: 트롯과 가요를 통하여 출연자와 관객과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작 참석하신 어른스님께 석문사 신도회에서 정성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성공양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식사 및 음료 떡 주류 다과 등)
시작 출연진
신명동예술단 스페셜 공연 (단장 외 7명), 민요 - 강선자 외 2명, 무용 - 정유진, 이연경, 덕성초등학교 사물놀이단

행사 개요

- 일 시: 2005년 10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장 소: 남이 초등학교
주 최: 호국불교 효해중 참된 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주최 후원: 주지 혜전스님 011-9607-2199
후 원: 청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 청원군노인회, 석문사 신도회
문의: 현대불교신문 대전충북 지사장 011-9422-8453 혜철스님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갈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라이라마를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제2장 보리심 공덕, 제3장 보리심 불발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산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승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불행되었습니다. 나 출간 진행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장지품부터 제8장 선정장지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랑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화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찾아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매년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문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명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발일품, 제 5장 호계장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여러 종의 번역본과 총과 발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A팀: 12월 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B팀: 12월 3일 -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장소: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 주 관: 여수 석천사 (전국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